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대불교대학 스님에게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심의 고보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출력일: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구로 건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FAX: (0343)470-3116

법공양 페이지

자기 버렸다면 하나도 두려울 게 없어

본능대로 살면 안되는 이유

문 아직은 절에 나가지 않고 있지만 나름대로 불교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스님께서 저의 못한 질문에 답변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게 읽었는지 모릅니다. 현재는 한마음요전을 두번째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 최근에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기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과 본능대로 하는 것과는 무엇이 다른지요? 마음공부도 하지 않는 새나 구더기 같은 동물들에게도 불성이 있다고 본다면, 진정한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기는 존재는 자신과 타자를 분리하여 인식하기 시작한 때로부터의 인간보다는, 아주 어린 영아나 유아 그리고 새나 구더기 같은 존재가 더 주인공에 맡기고 사는 것은 아닌지요? 큰스님의 가르침 바랍니다.

답 그래서 이런 말 하지요. 우리의 인생은 마치 녹음테이프에 저장시켜서 입력된 내용이 흘러나오듯이 그렇게 산다고요. 그래서 팔자가 있고 운명이 있고 고가 있다고요. 그러나 이 마음공부를 한다는 것은 몰랐을 때 살아온 내용이 입력된 테이프에 다시 새로운 녹음을 함으로써 전자의 입력된 내용을 바꾸어 나가는 공부라고 항상 말을 해 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차이점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인생에서 크게 본다면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아무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오산입니다. 오히려 어린아이 속에 허영하게 늙은 노인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에는 높고 굽고 가 본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언젠가 했었죠. 어느 아이가 불집게를 가지고 놀다가 같이 놀던 아이 정수리를 찔러서 죽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죽이려고 해서 죽인 게 아니거든요. 불집게를 가지고 놀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죽인 거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정자에, 죽은 애가 찌른 애를 그렇게 죽였던 겁니다. 싹새 꼬챙이로요. 그러니까 이게 피장파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인연의 과보를 모르고 죽은 아이 집에서 보상을 해라 말해라한다면 도루묵이 돼버리죠. 또 원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살생의 문제를 넘어서 인과성으로 또 얽어지는 거죠. 업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를 주인공에 놓는 이 공부야말로 자아 완성을 위해서 하지 않은

면 안된다는 얘기도.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내 안에 수없이 많은 의식들 속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일들을 근본에 되놓는 작업을 끊임 없이 하지 않고 그냥 무사태평으로 살아 가다가는 정말로 눈을 흘릴 일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공부는 알음알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쉽게 건성으로 믿고 놓고 맡기지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기 뿌리를 믿지 못해서, 맡겨 놔다가도 되짚어내고, 또 맡겼다고 하면서 되짚어내고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진짜로 믿는 사람은 한 번 맡겼으면 맡긴 그 자체가 아주 뚜렷하게 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심도 없고 근심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좀 시일이 지나서 풀

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생각이 드는 것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저에게 딱한 이 고통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답 벗어나고 싶은만큼 그 생각마저 주인공에 맡기고 놓으세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고통이랄 것이 없습니다. 알고 보면 하나도 없어요. 고통이라는 것이 왜 있었습니까? 단지 나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있으니까 무엇을 요구하고, 욕망을 가지고, 착을 가지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지, 내 생명까지도 다 갱개했다면 아무것도 불을 게 없어요. 하늘이 지금 당장 무너져서 납작해진다 하더라도 허허 웃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못개끔 될 수 있어야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들다는 생각을 놓을

'내가 있다' '내가 산다'는 생각에 남 탓하게 되고 고통 따르죠

릴 수도 있고, 단박 풀릴 수도 있는 그런 천차만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지 못하니깐 조금씩, '아이구! 이렇게 맡겨도 안되는구나!' 하면서 안달을 하는 거죠. 그렇게 자신을 못 믿으면 이 세상에 무엇을 믿겠습니까? 태어난 자체가 증거입니다. 뿌리로 인해서 짝이 있는데도, 자기 뿌리가 자기를 형성시켰는데도 그렇게 못 믿어서야 어찌 인간으로 태어난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었습니까? 살아오면서 뼈저리게 공부를 해왔던 분들이나 진정으로 이 도리를 알게된 고마움을 알고 감사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생각을 짓지 말고 정말 지극하게 믿고 들어가세요. 공부를 하다보면 주인공에 맡기는 것과 본능대로 사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문 스님 저는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좋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에게 주어진 이 고통을 도저히 감

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평생 모든 것을 그냥 놓고 가고 있습니다. 본래 놓고 가기 때문에 더불어 사는 인생이지 자기할 것이 없다는 얘기도. 자기 혼자 아니라는 얘기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몸 안에 생명을 두고 더불어 같이 살고 있고, 더불어 같이 먹고 있는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자기 혼자 만나는 겁니까, 어디? 더불어 같이 한마음으로 만나는 거죠. 그러니 혼자 만났다고 할 수가 없어요. 혼자 먹었다고 할 수도 없고, 혼자 산다고 할 수도 없고, 혼자 벌었다고 할 수도 없고, 혼자 즐겼다고 할 수도 없고, 혼자 잔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매사가 더불어 같이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가 했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말고, 자기가 산다는 생각, 자기가 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산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했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산다는 생각을 한다면, 항상 상대방을 원망하며 남을 탓하게 되거든요. 우주 천하가 더불어 같이 작용을 하고 내 몸뚱이 하나도 더불어



그림 · 최주현

같이 사는 인생인데 어떻게 혼자 산다고 하겠습니까. 그러기에 모든 것을 근본 자리에, 다시 놓으라고 하는데도 놓기는커녕 놓는다는 생각까지 들고 있어요. 주인공을 찾으라니까 주인공! 주인공! 입으로만 부르는데, 여러분의 뿌리와 짝이 그대로 한 몸입니다. 그러니 못 믿고 믿고도 없습니다. 그대로 믿고 맡겨놓으세요. 그래서 진정으로 뿌리와 짝이 맡겼을 때만이 되는 도리를 알아야 합니다.

삶에 대한 집착 놓으려면...

문 80세 할머니께서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환자는 자기 병을 모르고 있으며, 평생 마음의 애착이 너무나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절에 다니시면서도 불법의 진정한 뜻을 찾으려 하시지 않고 그냥 어머니께서 재촉하시기 때문에 절에 다니신 분입니다.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할머니께서 어서 삶에 대한 집착을 놓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런 삶의 집착을 놓을 수 있는 좋은 말씀을 스님께서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영영 다시 안 오는 게 아니예요. 언젠가는 다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구가 자리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모습을 빨리 벗고 늦게 벗고 문제가 아니라 한시라도 할머니께서 이 마음공부를, 자손들을 통해서라도 듣고 공부를 해서 본래 고정되게 나라고 할 게 없다는 것을 알아야 집착하는 그 마음을 벗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손들과 할머니가 다 함께 마음의 불을 천다면 더욱 힘껏, 그렇지 않다면 자손들이라도 할머니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그 애착을 놓을 수

도록 마음을 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강요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 오직 부드러운 말과 정성어린 마음으로 이끌어 드리세요.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절에 와서 부지런히 관하는 법을 배워서 할머니의 마음과 둘 아늑게 연결되어 있는 자기 내면자리에 할머님의 그러한 마음이 빨리 녹을 수 있도록 마음의 정성을 들인다면 좋은 결과가 올 겁니다.

깨달음으로 들어가기 어려워

문 큰스님, 항상 저희 중생들을 이끌어 주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실수와 좌절도 많이 하곤 하지만 다른 법우님들처럼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고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님, 저는 생각의 힘이든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느끼며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의 고민은 왠지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너무 겁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는 한생각이 곧 우주의 원리를 타고 체험으로 구현되는 그 깨달음의 세계로 마음의 수양이 덜 된 상태에서 선 불리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 위험하고 무모한 짓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끔 눈을 감고 명상을 하다보면 양 미관에서 어두운 가운데 하얀 백색광선이 심판처럼 번쩍이는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정작 두려움이 앞서 앞으로 전진하기가 두려웁니다.

제가 때 스스로 마음의 수양이 덜 된 걸 알기 때문에 제가 할나의 생각을 잘못 내어 그것이 오히려 그릇된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더욱 그렇습니다. 스님의 자비로우신 인도 부탁드립니다.

답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자기 자신이 무서운 거지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버렸다고 해보세요. 죽는 거를 개치지 않고 버렸다고 한다면 무서울 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지.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체가 죽는다고 모두 생각을 하는데 육체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죽는 게 진짜 문제죠. 이 몸은 차와 같습니다. 운전수가 한 걸 잘 끌고 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더 좋은 걸로 바뀌어서 또다시 끌고 다니는 차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 걸 겁때기가 나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갈 겁니까?

마음이 죽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이유를 알아야, 죽어야 나를 볼 수 있다는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고정된 내가 없다는니, 앞발 디디면 뒷발자국이 바뀔과 같이 없어진다는니, 그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 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등재를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익인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빛을 발하는 신비한 '운인(佛字체)'

"오복을 가져오는 새천년시대
 용의 꿈을 꾸세요~"

꼭 소장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새로운 천년시대에 '경면' 용의 꿈은
 천년이 운명을 밝게 해줍니다.
 ◎ 선기, 영기 발하는 佛자 말(말대)
 사(그림, 龍자(수맥과 차단) 특별보시!

정품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글씨 佛字,
 龍字 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한국 수백파
 방식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 인터넷 ◆
 http://www.korea-art-gallery.org
 http://www.mahamall.co.kr

복사본 및 인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실제,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주) (02)2242-0331, 2242-0255
 (야) (02)2216-0307, (011)471-1996
 E-mail : hbac@chollian.net

●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정준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敎藝術文化院
 韓國佛敎禪畫家協會

**불사 기금 마련
 서화 보급 안내**

일생생명의 영원한 작복처이며 사생육취의 장구한
 귀의처인 불도량을 건립키위해 대원을 발하였으나
 산이 깊어 시주의 인연이 멀고 부득이 신남 신녀
 남들의 특별한 신심과 우호를 바라며 불사를 이루
 고자 널리 호소하오니 성스러운 불사 원만히 성취
 되도록 물질상면의 지대한 가호 바라옵니다.

보림원

금강경 10폭병풍
 달마상 자비동자상

금강경 10폭병풍 5십만원
 - 달마상 1만원
 45x70cm(가로x세로)
 - 자비동자 1만원
 35x45cm(가로x세로)

■ 입금계좌번호
 농협: 150039-52-288411
 예금주: 보림원
 ■ 문의전화: 0561)749-4786

공 고

귀의삼보하옵시고,
 본회는 1999년 7월 31일 임시총회 이후
 부터 2000년 4월 7일 현재까지 직접 또는
 간접(후원 등)으로 다음과 같은 행사
 나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본회와 유사
 한 단체명(한국불교총연합회)으로 개최
 되고 있는 행사 또한 본회와는 전혀 관
 계없는 행사이므로 착오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본회 명칭을 사용한 법회 및 행사
2. 본회 명칭의 지불증 및 각서, 차용증,
 외상매입계약서 등 일체의 재무관련 서류의 발행
3. 물품의 판매 행위 또는 유사행위
4. 일체의 약정 행위

* 위와 관련한 문의사항 및 피해 신고는
 전화 02)738-2888, FAX 02)738-0449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4(2000)년 4월 7일

(사)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회장직무대행 김 기 문 합장

사원모집

승강기획은 불교음반 전문유통회사입니다.

모집부문	영 업
모집인원	1명
응시자격	고졸이상, 군필, 운전가능자, 나이제한 없음
급 여	초봉 95만원, 상여금 200% (3개월 수습기간 75만원지급)

◆ 매일 10일정도 출장이 가능하여야 함.

-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개별통지)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형식없음)
- 제출기한 : 2000년 4월 17일까지
- 제출처 : sk@buddhistmusic.co.kr
 (e-mail 및 fax 접수만 받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84-37
 TEL : 02) 745-6015 FAX : 02) 745-6017

승 강 기 획